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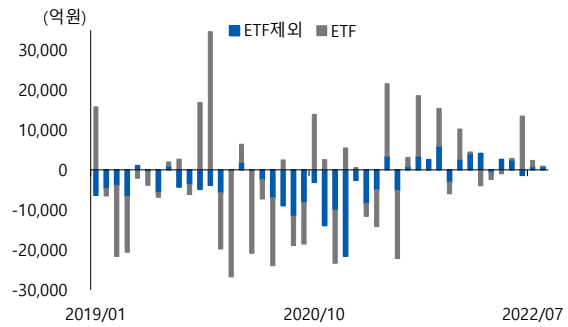


펀드는 멈칫, 외국인은 슬금슬금

1. 펀드 투자는 멈칫

- 2021년 메타버스, 2차전지 등의 테마펀드에 투자가 늘어나면서, 국내주식펀드로 자금 유입
- 연초이후 주식시장이 약세를 보이면서, 국내주식펀드로의 자금 유입은 줄어드는 추세.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영향을 받고 있음
- 2차전지, 미국 주식 등으로 이어지던 해외주식펀드로의 자금 유입도 10개월만에 순유출 전환.

국내주식펀드와 ETF로의 자금 유입 규모는 줄어드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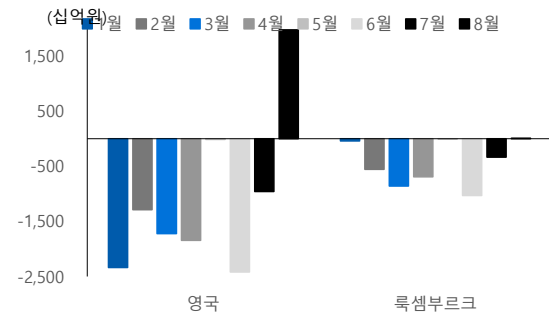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외국인은 슬금슬금 국내주식 투자 확대

- 장기투자인 뮤추얼펀드의 영향력이 큰 미국은 7-8월 우리나라 주식을 월간 1.5조원 넘게 순매수
- 매크로 환경 변화에 민감해서 상반기 큰 규모의 순매도를 이어왔던 영국과 룩셈부르크는 8월 국내주식 순매수 전환
- 신흥국 주식펀드 안에서 한국과 대만의 비중은 6월 크게 줄어들었으나, 7월 이후부터 다시 증가 추세

국내 주식의 순매도를 주도했던 영국과 룩셈부르크는 8월에 순매수 전환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1. 펀드투자는 멈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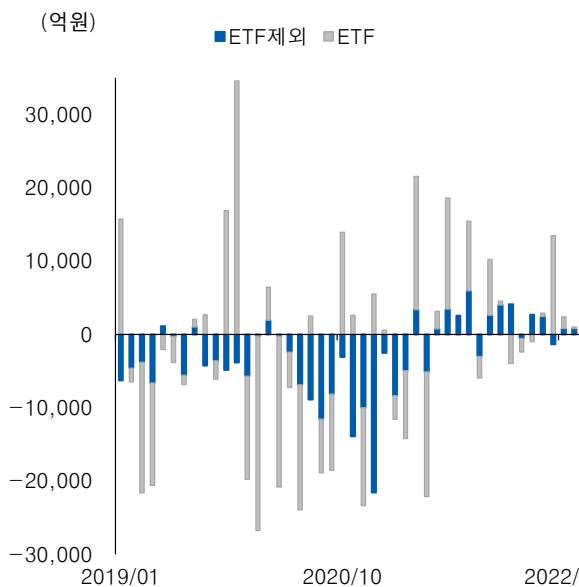
2020년 개인투자자들이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투자를 늘릴 때도 국내주식펀드에서는 이익실현을 위한 환매가 이어졌었다. 2021년 메타버스, 2차전지 등의 테마펀드에 투자가 늘어나면서, 국내주식펀드로 자금 유입이 재개되었다.

2022년 국내주식시장과 해외주식시장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국내주식펀드로의 자금 유입은 줄어들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이 약세를 보일 때 저가매수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으나, 올해는 그런 모습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꾸준히 늘어나던 해외주식펀드는 10개월만에 순유출로 돌아섰다. 미국 기술주와 2차전지 등의 산업에 대한 믿음으로 주식시장 하락에도 투자를 이어왔던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경기 침체 우려로 해외주식펀드 투자에 관망세로 돌아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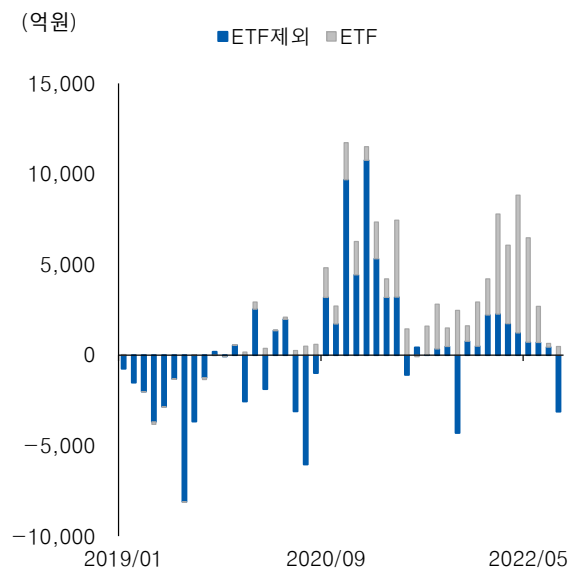
하반기에는 국내투자자들이 주식투자보다는 채권투자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투자자들은 채권 가격의 하락과 높은 이자로 채권 자산의 투자를 늘리고 있다.

[차트1] 국내주식펀드와 ETF로의 자금 유입 규모는 줄어드는 추세.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2] 해외주식펀드는 10개월만에 순유출 전환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외국인은 슬금슬금 국내주식 투자 늘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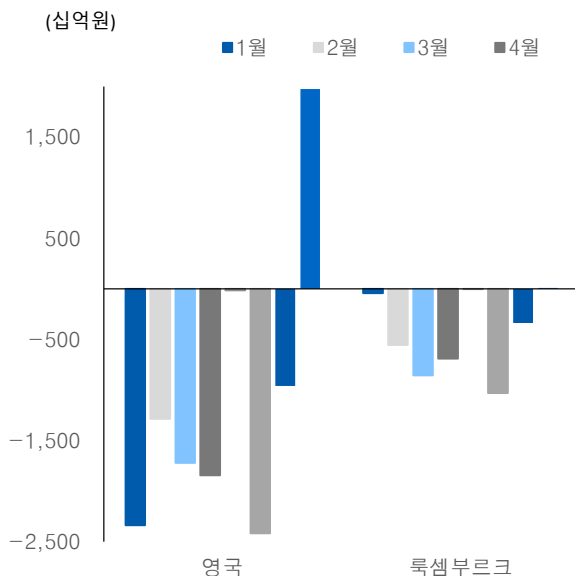
외국인 중에서 우리나라 주식 보유 비중이 높은 국가는 미국(41.1%), 영국(8.2%), 싱가포르(6.6%), 룩셈부르크(6.3%) 순이다. 이들 나라가 우리나라 주식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냐에 따라 외국인 수급이 큰 영향을 받는다.

장기 투자인 뮤추얼펀드의 영향력이 큰 미국은 2020년과 2021년에 16.0조원과 7.8조원의 국내주식을 순매도하였으나, 올해는 3.4조원을 순매수하고 있다. 7월과 8월에는 1.5조원이 넘는 순매수를 기록하면서, 외국인 수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헤지펀드, 패밀리오피스 등이 위치한 영국과 룩셈부르크 등은 매크로 환경 변화에 민감하다. 작년 하반기부터 영국과 룩셈부르크 등은 우리나라 주식 매도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나, 8월에는 두 나라 모두 순매수로 돌아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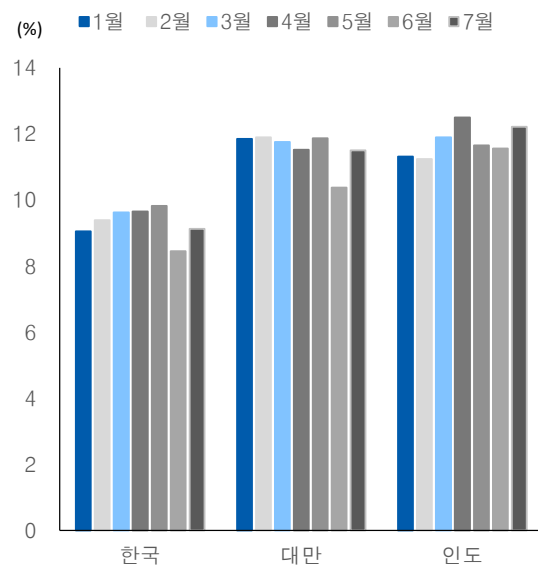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신흥국 중에서 주식시장 규모도 크고 유동성이 많아, 매크로 환경 변화가 있을 때는 외국인 매도가 커지는 경향이 있다. 지난 6월에도 이런 이유로 신흥국주식펀드 안에서 한국 비중이 대만과 함께 크게 줄어들었으나, 7월 이후에는 다시 한국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차트3] 국내 주식의 순매도를 주도했던 영국과 룩셈부르크는 8월에 순매수 전환



자료: 금감원,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4] 신흥국펀드 안에서 한국과 대만 비중은 6월에 크게 감소



자료: 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